법회안내

손모음선원(02)3437-695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30분
산중기도 매일 오후7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혜천스님

대구 은적사(053)653-1572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보름참회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주지 법민스님

안동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안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약사사(0636)453-2422
금강회법회 매월초3일(음) 오전10시30분
약사재일법회 매월초8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불심정사(02)977-0108
경전한문공부 매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참회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 매주 토요일 오전10시30분
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인천 능해정사(032)519-5552
교리강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격주 일요일 오후2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제주불교법우회(064)24-0108
월례법회 매월첫째주수요일 저녁7시
참회법회 매월둘째주수요일 저녁7시
가정법회 매월셋째주수요일 저녁7시

고양 장안사(0344)63-1954
가족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안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장안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동포애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30여 신행단체가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 동포 돕기운동의 단일창구로 (가칭)북녘돕기불교기구 준비위원회를 17일 발족시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단체들도 모금법회, 바지회, '한주 한끼 굶기 운동' 등 북한 동포돕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모처럼 '한 겨레 한 핏줄'의 끈끈한 정을 확인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왜 같은 동포를 도와야 하는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몸 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세상에 재앙이 있고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비심(悲心)을 일으켜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목숨을 건져 본토(本土)에 안정해 살도록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면 복(福) 덩어리는 바다와 같이 무량하리. 〈법화경〉

○…일체 지수(地水)와 일체 화풍(火風)이 모두 내 전생의 몸이니 항상 산 목숨을 살려주어야 한다. 〈범망경〉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응당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중생을 애호하되 제 몸과 같이 해야 한다. 〈보살행변화경〉

○…모든 생명있는 것들에 늘 편안함을 주며, 늘 자비롭기를 원해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언제나 장수하고 편히 잠자며 또 악몽을 꾸지 않으며 악취(惡趣)를 두려워 않게 될 것이다. 〈해용왕경〉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친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시방의 온갖 중생을 두루 살펴본 끝에 한 중생이라도 괴로움을 지닌 자를 보았을 때는 자식같이 사랑하여 대신해 괴로움을 받음으로써 그 중생이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해 준다. 이런 자비심이 작용하는 까닭에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대비(大悲)의 뛰어난 보살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광석보리심론〉

○…세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갓난애를 젖먹여 기르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만약 병들면 양약(良藥)을 가려 먹여 병을 고쳐서 편안케 해준다. 여래대사(如來大師;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 보기를 그 자식인것 같이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마음을 쓰시지만, 중생이 악업을 지어 보(報)를 받을 때는 교묘한 방편으로 구제하사 해탈케 하신다. 〈선교방편경〉

○…보살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남만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중생을 성숙시킴이 저들 세속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다. 〈대승장엄경론〉

신행수첩

◇17일 연꽃마을에서 마련한 점심을 공양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의탁노인 급식 · 진료

"잘 움직이지 못해도 이젠 맘 놓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같이 배우는 놀이들도 재미있구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정준구)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동안 식사제공, 질병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무료, 일반 거동불편 노인은 하루 3천원이다.
(02)365-3677

대흥사 불교유적 답사

만물이 약동하는 싱그러운 봄.

남해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조상의 얼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적답사 기행을 떠나보자.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6일 대흥사, 북미륵암, 일지암 등의 일정으로 절도 참배하고 석불도 배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불교유적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좋은 기회. 회비는 4만원.
(02)760-5171

'몽골자매결연' 하루찻집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스님)이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몽골 자매결연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이번 찻집은 28일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포교원 3층법당에서 차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전통등 전시 및 판매도 한다.

한편, 포교원은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도울 봉사자 신청도 받고 있다. 봉사자들은 대회기간동안 안내 및 응원 등을 담당한다.
(051)816-2241

흥덕사지 인쇄문화 탐방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 직지의 고향을 찾아간다.

천리안 문화유산답사회는 직지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작은 답사를 마련했다. 이번 답사는 27일 오전10시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을 시작으로 청주국립박물관, 안심사, 용두사지 철당간 등을 둘러보게 된다.

흥덕사는 직지를 처음 찍어 낸 곳으로 유명하며, 용두사지 철당간은 국내에 몇개 남지않은 철당간이라 관심을 끈다. 회비는 5천원. 012-453-3883

국악 · 가무등 경로잔치

모든 행실의 근본은 효(孝).

웃어른을 공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결 밝아지지 않을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베푼다.

부산 금곡사(주지 주도화스님)는 26일 오전11시 수영민속보존협회 놀이마당에서 효자 효부 시상식, 국악연주, 가무공연 등의 순서로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한다. (051)758-0636

신행상담 공개방송

스님과 나누는 교리문답의 시간. BBS '자비의 전화'(PD 전승환)가 방송국 개국 7주년을 맞아 공개방송을 한다. 상담자인 송강스님(개화산 미타사 주지), 동봉스님(경기도 곤지암 우리절 주지), 본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을 한자리에 모시고 불자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줄 이번 공개방송은 스님과 함께 신행상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개방송은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28일 오후1시에 열린다. (02)705-5252

송광사 '한가족 가사 한벌짓기' 행사

세존께서 출가하시어 비단옷 버리시고 사냥꾼의 남루한 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것이 출가사문의 법의인 가사(袈裟)의 시초이다. 따라서 가사는 그냥 만들어 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식에 따라 지어서 대덕스님의 증명하에 점안의식을 거쳐야 비로소 법기(法器)로 탄생하게 된다.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현고스님)는 승보의 표상인 가사가 여법한 절차에 따라 작법되지 못하고 있는 차에 모든 조계종 스님에게 한 벌의 법다운 가사를 봉정하기 위한 '불자 한 가족 가사 한 벌 짓기'와 '일만 벌 가사불사'를 추진, 5월2일 대웅전에서 제2차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갖는다.

가사불사에 동참을 원하는 불자는 송광사 본·말사 및 전국불일회 지회로 연락하면 된다. (0661)755-0107~9

나의 수행일기

김 윤 환

마음 열어준 '마랑부' 전설

서점서 무료문화행사 신행공간 마련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십년전, 새벽달을 머리에 이고 은하사를 찾을 때 부터였다.

은하사에서 내려다 보는 산과 강과 도시의 불빛은 우주와 인간세상의 질서와 원융자재한 충일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위에 새벽예불을 드리는 목탁소리가 가슴을 두드려 저절로 두손을 모으게 하였다.

"달빛이 차가운데 들어오세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예불을 마친 스님의 모습이 경건하게만 보였다. 나는 말없이 스님의 뒤를 따랐다. 스님은 자리를 권하며 간단한 차반을 내왔다.

"새벽달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비로소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원융자재한 달은 불교적 이념 구현을 상징하지요. 밝고 원만하되 강이나 바다에 비치는 달은 어느 곳에서나 같은 모습, 같은 밝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구여일한 진리의 보편성을 상징합니다. 어둠속에서 우주만상을 비추는데서 무명(無明)을 상징하기도 하구요."

스님은 금빛 모래 개울가(金沙灘)의 마랑부라는 법문을 전설로 들려 주었다. 마랑부(馬郎婦)는 마씨 낭군의 부인이란 뜻이다. 관음보살의 화현을 뜻하는 말로써, 관음, 마랑관음이라고도 한다. 손에 광주리를 들고 평범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음이라 하여 어람관음이라고도 하는데, 〈계고집〉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협우지방을 교화하기 위하여 어여쁜 여자로 나타났다. 많은 남자들이 배필로 삼고자 앞을 다투어 청혼했다.

이에 여자는 밤을 세워 〈보문품〉을 외우는 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다. 새벽이되니 20여명이 외웠다. 내몸은 하나인데 스무명에게 시집을 갈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금강경〉을 외우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10여명이 되었다. 다시 〈법화경〉 일곱권을 주면서 3일동안 외우라고 하였다. 3일만에 외운 사람은 마씨네 서방님이었다. 여자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마씨를 남편으로 맞았다. 첫날밤, 여자는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니 손님들이 헤어지기도 전에 죽었다. 마씨는 너무나 슬프고 애처러운 나머지 곱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

나중에 어떤 노승이 와서 여자가 간곳을 물었다. 마씨는 묘소를 안내하였다. 노승은 들고있던 석장으로 묘를 파헤쳤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시체가 온통 황금으로 변하여 그날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스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을 치는 것이 있었다. 무덤속의 황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사탐의 양식을 보살심으로 열어주는 나로서는 말없는 침묵으로 죽은듯이 진열되어 있는 책들이라 하겠다. 그 어느 책이라도 그 속에는 한마디 법문이 깃들여 있어, 인생의 행로를 평탄하게 걷게 하는 황금이 아니겠는가.

하루 평균 8천부의 책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점이 나의 주소처라면 산사를 오르는 길은 세속의 번뇌와 티끌을 말끔히 씻어주는 기도처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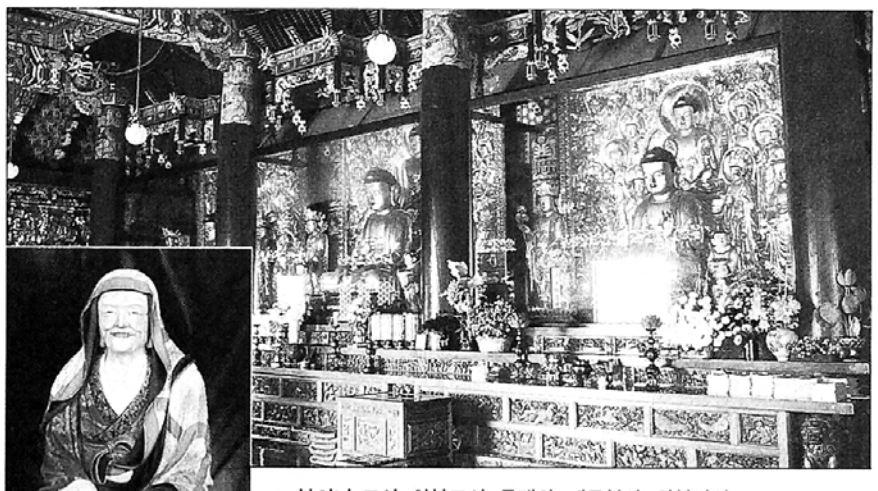
전국에서 문화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서점이 영광도서다. 매달 열리는 독서토론회를 비롯하여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소설학당, 서예학당, 한문학당 등 수년동안 무료강좌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같은 넉넉한 공간마련은 널리 베풀고자 하는 보살심이라 하겠는데, 경제인 불자의 신행 단체인 부산불교실업인회에 참여하여 매월 사찰순례와 법회개최의 신행생활이 배어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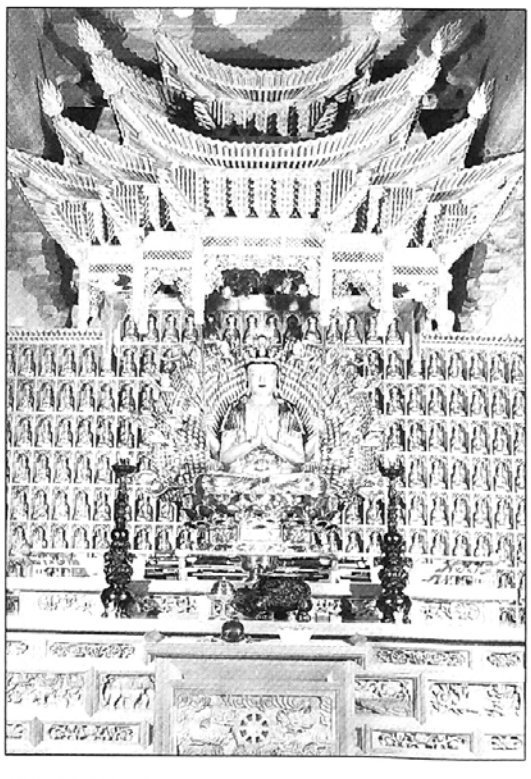
사업이 어려울때나 마음고생이 안으로 쌓일때면 매일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슴을 모두어 하는 백팔배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 백팔배야말로 건강은 물론 먼지 낀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는 충만감을 안겨준다.

〈부산영광도서 대표이사〉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